

‘환자 폭행’ 광주시립요양병원 위법 무더기 적발

市 특별조사, 진료·간호기록부 미 기재 등 드러나 시의회 “분식회계 의혹 조사하고 위탁 해지” 촉구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입원환자 폭행 의혹사건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의회는 “분식회계 의혹도 조사하고, 이사장과 해당 간호사 등 책임자들을 대거발령한 뒤 위탁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진숙)는 1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으로부터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 인

의뢰료제단 특별조사 중간결과 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으로는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 ▲정신병원 임원 관련 서류 미비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 사항 위반 ▲요양원 예산과목 부적정 ▲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정보 미동의 등 5건이 적발됐다. 또 지도사항으로는 ▲법인 설립등기 등

의 보고 미이행 ▲요양병원 운영 필요 기준 매뉴얼 미비 ▲내부 취업규정 미준수 등 3건이 적발됐다.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재무상태표 기표 오류, 간병비 집행근거 부재, 요양병원 내 개방형 병동 운영 필요, 휴대폰 소지 금지 해제, 동료 노인간 폭행 발생,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낙상, CCTV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환자폭행 의혹에 대해 광주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 다.

전진숙 위원장은 “시의회는 이번 일이 바닥으로 추락한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가 시립요양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제정립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오섭 시의원은 “분식회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협약서에 따라 위수탁을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최근 의사 겸 이사장이 입원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갈색날개매미충 포획장치 개발

전남도 농기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유인 포획장치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연구팀은 곤충이 선호하는 노란색과 미생물에서 추출한 냄새를 활용해 가로 40cm, 세로 40cm 크기의 포획 트랩을 만들어 10일만에 2000 마리를 포획했다. 어느 장소에나 설치할 수 있고 설치방법도 간단한 데다 약제를 쓰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0년부터 전국에 급속하게 퍼진 갈색날개매미충은 7월 상순부터 성충이 돼 과일나무의 잎이나 줄기에 붙어 피해를 준다. 성충은 잎이나 가지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가 하면 가지 속에 알을 낳으면서 나무가 약해져 고사피해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8월이면 산란기에 들어가 성충 한 마리당 150여 개의 알을 낳아 번식 속도가 빠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청자축제 관광객 북적 제45회 강진청자축제 나흘째를 맞은 1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시된 청자를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가’ 등급 0 ... 고개 숙인 광주·전남 지방공기업

행안부 경영평가 대부분 중·하위

광주·전남 지방공기업들이 고개를 숙였다. 상수도 지방 공기업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 등 일부 공기업은 선전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이날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16년도 실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출

자·출연한 지방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기초단체 상·하수도 평가에서 순천시와 광양시가 ‘가’ 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소와 영업수지 비율 개선, 1인당 영업수익의 증가 등에 힘입어 ‘나’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도시철도공사 7곳 중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오른 성적이다. 지난해 ‘가’ 등급으로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던 광주도시공사는 ‘다’ 등급으로

급락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지만 혁신도시나 진곡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종료된데다 도시첨단단지,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재무성과가 크게 떨어졌다. 특정공사 공단 분야의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도 지난해 ‘나’ 등급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 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평가 ‘다’ 등급을 기록했으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의 광

주환경공단도 지난해와 같은 ‘다’ 등급을 유지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광주는 모두 최하위 수준인 ‘다’ 등급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미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경영평가 결과는 크게 호전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③ 친환경차안전연구원 설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안전규제 강화 전문인증기관 필요

車 연구개발 인프라 최고 빛그린산단 300억 투입 2021년까지 설립 방침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포함돼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 전자 부품 산업 생산기반 조성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이다.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화, 전장화, 스마트화로 ‘혁신’을 계속하고 있어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연계한 인증 전문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내연기관과 전력기반 차량의 분리 인증을 통해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친환경자동차산업 발전을 광주가 이끌겠다는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3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인증 장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광주지역 공약에 포함된 뒤 광주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최종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원으로, 관련 전자부품이 급증하고, 내부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진다. 국제안전 인증규제(ISO26262)도 강화돼 전문 인증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방법의 인증규격 및 평가방법이 요구되는데다 시스템 효율 향상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술의 중요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증기관이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 유럽 최고의 자동차 인증기관 호리바마이라와 상생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여기에 광주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자동차센터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62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산업단지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 3대 자동차 생산 거점인 경기도, 울산·경남에는 완성차 및 부품 인증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호남권에는 없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친환경차 안전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안전연구원의 인증범위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E-mobility 등 전력기반자동차, 자동차, 광, 기전 융합 전자부품 등 융합 전자부품이며,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성능, 기능안전 인증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청소년범죄와 유전자 연관성 연구” 인권침해

광주 16개 시민단체 진정서

조선대 교수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의 연관성 추적 연구’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YMCA와 광주인권회의 등 광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 상호 작용 연구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우려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관련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선대는 최근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며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단체는 조선대의 해당 연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3-증-83333호

바른의료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욱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곳!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